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청년 유권자의 탈정당화:
가치관과 이념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갑 철

청년 유권자의 탈정당화:
가치관과 이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원 호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갑 철

김갑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6월

위 원 장 강 원 택 (인)

부 위 원 장 박 원 호 (인)

위 원 안 도 경 (인)

국 문 초 록

전통적으로 청년 유권자는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탈정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가치관 및 이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치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당지지를 결정하는지 탐구한다. 무당파의 경우 정치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높았으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낮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의 경우, 가치관과 이념 양면에서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보다 강한 상관관계 하에 있음이 드러났다. 청년의 경우 여타 연령에 비해 정당일체감이 가치관과 이념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무당파,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이 정치 무관심층이라기보다는 뚜렷한 이념적 선호를 가지고 있으나 정당에 의해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기 정당일체감 형성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도 가치관과 이념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정당일체감, 청년, 탈정당화, 가치관, 정치이념, 정치적 무관심, 인지적 동원

학번: 2013-20175

목차

I.	청년층과 탈정당화.....	1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5
	1. 정당일체감과 한국에의 적용.....	5
	2. 무당파의 성격과 정당일체감 강도의 의미.....	7
	1) 무당파 유권자와 정치적 관심도의 관계.....	7
	2) 정당일체감 강도의 의미와 약한 정당일체감.....	9
	3. 정치적 무관심, 혹은 인지적 동원: 청년층의 탈정당화... ..	11
	4. 가치관과 유권자의 이념 분화.....	13
III.	변수의 설정 및 기술통계.....	17

IV. 분석.....	31
1. 정당일체감 강도 모델.....	31
2. 정당일체감 모델.....	38
3. 소결.....	42
V. 토론.....	43

표 목차

<표 1> 정당일체감 및 정당일체감 강도 분포	19
<표 2> 가치관 설문 분류.	21
<표 3> 전 응답자 대상 가치관 설문 기술통계.	22
<표 4> 청년 응답자 대상 가치관 설문 기술통계	23
<표 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이념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26
<표 6> 청년층 응답자의 통제변수 분포	29
<표 7> 전체 응답자의 통제변수 분포	29
<표 8>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회귀분석	33
<표 9> 청년 대상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다변량로짓분석.	36
<표 10> 전 응답자 대상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다변량로짓분석.	37
<표 11> 청년 대상 정당일체감에 대한 다변량로짓분석.	40
<표 12> 전월 대상 정당일체감에 대한 다변량로짓분석	41

그림 목차

<그림 1> 공평성/부정 및 권위/전복 설문에 대한 청년 응답자의 평균	24
<그림 2> 공평성/부정 및 권위/전복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24
<그림 3> 배려/피해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25
<그림 4> 배려/피해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25
<그림 5> 이념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와 청년 응답자의 평균	27
<그림 6> 교육수준과 계층의식 평균	30

I. 청년층과 탈정당화

2000년대 초 한국의 투표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독립변수로써 제시된 “이념, 세대, 미디어”(강원택 2003) 가운데, 연구자와 대중 모두에게 가장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는 변수는 단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30대(이하 청년층)의 투표율과 투표선택에는 선거 때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라는 규범적 덕목에 기인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년층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성패를 가름하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더욱 뚜렷해진 청년층의 진보 지지 성향, 낮은 투표율로 인해 역설적으로 높아진 잠재적 동원 가능성,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인 당락 간 격차로 인해 청년층의 투표 참여여부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졌다.

"미래는 20, 30대들의 무대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아요. 꼭 그 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¹

¹ "정동영 의장 '노년층 비하' 논란." 2004년 4월 1일자 YTN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

발언의 맥락 및 정략적 목적으로 인한 의도적 오해 여부와는 별개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실언은 세대와 당파성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당파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투표가 자신의 당파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노년층의 투표 참여 증가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발언은 고사하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투표행태와 대중적 인식은 세대를 경계로 하여 유권자 사이에 당파적 · 이념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전후하여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언론의 당파적 경향 심화(고영신 2005; 김인영 2010)와 양당 간 이념적 · 정책적 격차는 적어도 유권자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를 반영한 것(Abramowitz 2010)이거나, 유권자의 정책적 기준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렬(sorting)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Fiorina 2011)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당일체감의 질적 · 양적 강화를 수반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각 연령집단들의 상이한 투표행태를 고려한다면, 선택적 수용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정치적 사건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자신들의 당파 및 이슈 태도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의 20대가 가진 정치적 정향은 정치적 무관심과 탈정당화라는 단어로 설명되었다.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누적된 청년층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의 추이는 민주화 이후에서 2007년까지의 점차적인 정당일체감 약화 및 무당파의 증가라는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대중 및 정치인들의 통념과는 어긋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영민 2010)이 있는 한편, 정치관심도가 높은 무당파층이 점차 선거와 정치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주장(박원호 송정민 2012)도 존재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치관과 이념을 주된 독립변수로 삼아 정당일체감 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정당일체감 약화 내지 탈정당화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의한 것인가, 그들의 생각을 대표할 대표자의 부재에 의한 것인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투표행태와 여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의 당파성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권자의 이념적 · 당파적 배열의 장기적인 변화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세대가 오래된 세대를 대체함으로써 형성되거나, 적어도 세대 간 대체를 수반하여 일어난다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젊은 세대의 당파성에 대한 이해가 유권자의 당파성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²

² 예컨대 60년대 이후 미국 남부의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의 변화는 이전 세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연령에 갓 진입한 젊은 세대가 자신들 나름의 정당 지지를 확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청년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분포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다른 당파성을 가진 새 세대가 대두함으로써 지역의 정당 지지 구도가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Osborne et al. 2011).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정당일체감 개념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미시간 대학의 연구자들이 주창한 정당일체감 개념은 당파성을 투표결정과 구분되며 사회계급, 종교교파,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태도와 유사한 감정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장기적·감성적·심리적 일체감”으로 정의된다(Campbell et al. 1960). 정당일체감은 실질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기 이전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정당일체감은 성장한 뒤 정치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선별적 수용이 일어남으로써 강화된다고 미시간 학파의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그들은 이렇게 형성된 정당일체감이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일체감이 야기하는 정보의 선별적 수용 작용으로 인해 정당일체감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캠벨과 그의 동료들의 저작 이후 약 반세기간에 걸쳐 일어난 미국의 사회적 변화와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미시간 학파의 정당일체감 개념의 적실성을 인정하며 연구에 원용하고 있다(Lewis-Beck et al. 2008).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정당일체감 이론의 도입은 시기상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의 강한 영향력, 정당의 빈번한 해산 및 결성과 이에 따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인해 유권자가 안정적인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박찬욱 1993).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97 년의 정권교체 이전에는 정당일체감과 “기능적 대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야성향과 같은 개념도 정치적 소속감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태도로부터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조중빈 1993). 그러나 3 당합당 이후 정당체제의 상대적 안정, 정권교체, 지역주의의 부분적 약화, 양대 정당 간의 이념적 · 정책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정당일체감 이론에 기반한 투표행태 설명의 이론적 적실성을 높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정당일체감이 투표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현출 2000; 박원호 2012; 허석재 2012; 길정아 2013).

특히 박원호(2012)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정당일체감 적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에서 유래한 정당일체감 개념이 역사와 사회 구조가 상이한 한국에서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18 대 대선 이후 여론조사를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응답자들의 표면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선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요인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응답자의 정책적 선호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서도 정당일체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무당파의 성격과 정당일체감 강도의 의미

1) 무당파 유권자와 정치적 관심도의 관계

청년층이 규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무당파 유권자가 실제로는 정치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였다는 연구 결과(Berelson et al. 1954; Campbell et al. 1960)는 무당파의 정치적 무관심을 결부시키게 했다. 이는 유권자의 당파에 대한 소속감이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유권자의 신념 체계를 다룬 컨버스의 논문(Converse 1964)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변화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 · 사회주의 · 영업의 자유 ·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연방 정부의 평창에 대한 태도, 정부와 개인 사이의 관계라는 네 가지 기준을 진보-보수 이데올로기 구분과 공화 · 민주 양당과 정확하고 일관되게 관련지을 수 있는지를 이념적 세련됨의 지표로 정의하여 측정된 결과,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무당파가 가장 높은 이념적 세련도를 가진 집단과 가장 낮은 이념적 세련도를 가진 집단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였다. 이는 당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자로 바라보는 견해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무관심층으

로 바라보는 견해 모두 무당파층의 일면만을 바라본 것이며, 실상 무당파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당파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의식적인 비당파(Apartisan)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는 비정치층(Apolitical)으로 나뉘어 있음을 의미했다.

이후 달튼은 일련의 비교적 연구를 통해, 6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일어난 평균 교육수준 향상과 미디어 발달로 인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슈 태도에 근거한 투표선택이 가능한 '인지적 무당파'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alton 1984). 이러한 주장은 정치참여와 일관된 투표선택의 원인으로써 제시되던 정당일체감의 영향력 및 안정성 약화와 유권자의 정책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무당파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나,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인지적 무당파의 특색을 상당 부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오래된 연구인 소순창(1999)이나 이현출(2000)의 연구에서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층에 가까운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순수 무당파나 강한 당파성을 가진 유권자와는 다른 편향적 무당파의 성격(박원호 송정민 2012)이나 무당파가 단순히 정치적 관심이 적은 유권자라기보다는 정당 지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결과(정한울 2012)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추세의 변화는 유권자의 평균적 교육 수준의 변화와 더불어 뉴미디어를 통해 정치정보에의 접근이 쉬워짐으로써 인지적 무당파가 늘어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당일체감 강도의 의미와 약한 정당일체감

정당일체감은 대개 무당파를 중앙에 두고 양대 정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을 양 끝에 둔 5점 내지 7점의 이행성 있는 척도로 측정된다. 정당일체감의 척도와 관련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기되었던 비판은 정당일체감의 이행성, 즉 정당일체감의 강약이 일관성 있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페트로치크(Petrocik 1974)는 편향적 무당파로 분류되었던 유권자들이 약한 정당지지를 가진 유권자들보다 정당지지적 투표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그는 편향적 무당파보다 약한 정당 지지자가 자기 정당일체감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통상적인 정당일체감 이론의 가정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非)이행성(intransivities)’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정당일체감의 강약이 당파성의 강약이나 투표행위의 일관성 정도를 완전하게 대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정당일체감이 가장 약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편향적 무당파(leaning independent)를 당파성 있는 유권자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당일체감의 척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와이즈버그(Weisberg 1980)가 제기했다. 그는 미시간 모델이 1) 무당파는 공화당-민주당 정당일체감의 중앙에 위치하고, 2)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며, 3) 정당들에 대한 반대는 무당파성과 동일하다는 세 가지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하며, 당파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에 더해 무당파성을 별도로 측정하는 3 차원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호와 송정민(2012)은 편향적 무당파의 성격을 분석하여, 이행성 있는 정당일체감 변수로써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무당파층은 저연령, 고학력, 약한 진보 성향과 낮은 선거관심도 및 참여도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 특히 편향적인 무당파층은 소득, 학력, 정치적 효능감 등 정치적인 자원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동원이 이뤄지지 않은 계층이라 보았다.

앞선 논의를 종합할 때,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약하다는 사실이 그 유권자의 정치관심도 혹은 이념적 편향이 낮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장집(2001)이 지적하듯 주요 정당에 의해 대표되는 이해관계 및 이념의 스펙트럼이 좁은 한국의 경우 강한 정치관심도와 이념적 편향 및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오히려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약화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에 대한 자기평가와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할 때,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편향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설 1: 강한 이념적 편향을 가지는 유권자가 강한 정당일체감보다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3. 정치 무관심, 혹은 인지적 동원: 청년층의 탈정당화

젊은 유권자들이 나이든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일체감이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선거연구 영역의 초기 저작들에서부터 지적되어 왔다 (Campbell et al. 1960). 미시간 학파의 연구자들은 초기 정당일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의 강한 영향력을 인정했으나 이것만으로 정당일체감이 확립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즉 지적·사회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정치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데에 시간이 걸리며, 정당일체감이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정당일체감은 비교적 약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청년층의 탈정당화는 중요한 화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20대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며 무당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찍이 인식된 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홍재우 2012; 김도경 2013) 외에도 미디어(황근 김용수 2005; 민영 2008; 송인덕 2012; 이창호 류성진 2013), 정치의식의 특성(이영민 2010) 등 여러 관점에서 20대의 정치적 성숙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영민의 연구는 은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로분석 모델을 통해 정치신뢰도, 정치참여, 정치지식, 정치효능감과 같은 정치사회화의 지표들과 당파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는 청년층의 무당파 증

가의 원인으로 낮은 정치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들었다.

한편 일군의 연구자들은 탈물질주의(Inglehart 1977)와 인지적 동원 이론에 근거하여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의 변화로써 탈정당화를 설명했다. 정진민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지역주의나 이념에 근거한 투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과 현직자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박원호와 송정민(2012)은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들, 즉 편향적 무당파층(leaning independent)이 충분한 정치적 관심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은 인지적 무당파(Dalton 2012)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한국의 무당파가 갖는 낮은 투표율은 단순한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무당파들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청년층의 약한 당파성은 정당일체감이 발현되고 성숙될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일체감이 터잡을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의 부족에 교육수준의 향상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 습득의 용이함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야말로 정당이라는 지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획득한 정보에 근거해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과정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계층일 수 있다.

가설 2: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가치관과 이념과 정당일체감의 상관

관계가 보다 강하고 유의미할 것이다.

4. 가치관³과 유권자의 이념 분화

“지속적 결정(standing decision)”(Brody and Page 1972)이라는 개념이 적시하는 바, 즉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력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했지만, 정당일체감 모델의 정태성과 정당 선호의 외생성은 한계로써 지적되었다. 정치적 정보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유권자를 상정하고 집단에 대한 동일시라는 심리학적 기제에 바탕을 두어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정당일체감 이론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선호가 성장 과정에서 주위 환경에 의해 외생적으로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변화할 여지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슈, 정책, 이념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Carsey and Layman 2006; 장승진 2013)하나, 정치적 쟁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를 가정한 뒤 정당일체감 및 정당지지의 변화의 원인을 이념성향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유권자의 이념적 편향 내지 선호를 외생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은 정당일체감 이론과 마

³ 도덕성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에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감각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도덕성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 지향보다는 정당지지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의 맥락에서 도덕성은 각 정당의 청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높기에, 도덕성 기반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 외에는 가치관이라는 용어로 갈음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가지이다. 요컨대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비합리적인 일체감으로써 설명하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든 유권자의 일체감 혹은 판단의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은 모델 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도덕성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의 주창자인 하이트(J. Haidt)는 정의와 배려로 요약되는 합리주의적 발달심리학자들의 도덕성 원칙이 사회계약론과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의 도덕적 기초에 기반해 있으며 보편적인 도덕성 원칙의 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Haidt 2012; 석승혜 장애빛 2015). 인간의 선형적 도덕성 기반은 인간 집단 간의 경쟁과 집단선택의 과정에서 집단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형성되었기에, 개인주의적 도덕성 기반뿐 아니라 집단주의적 도덕성 기반도 보편적으로 공존한다고 보았다(Haidt and Joseph 2004). 그레함과 그의 동료들(Graham et al. 2009)은 개인주의적 도덕성 기반을 ‘개인성 기반(individualizing foundations) 요소’로, 집단주의적인 기반을 ‘결속 기반(binding foundations) 요소’로 분류했다. 개인성 기반 요소로써 배려/피해(care/harm), 공정성/부정(fairness/cheating)를, 결속 기반 요소로써 충성심/배반(loyalty/betrayal), 권위/전복(authority/subversion)과 품위/타락(sanctity/degradation)을 꼽았다.

한편 이러한 기반 요소들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기반과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진보주의자(liberal)들이 개인성 기반 요소에 보다 민감한 반면 보수주의자(conservative)들은 개인성 기반 요소와 결속 기반 요소에 모두 민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보수주의 연구자들이 보수주의의 특징으로 언급하던 변화에 대한 거부, 위계에 대한 존중과 같은 요소들이 도덕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이념성향에 선행하는 요소라고 보았다(Van Leeuwen and Park 2009; Haidt and Graham 2007).

한국의 도덕성 기반 이론 연구자들 역시 도덕성 기반 차이와 이념성향으로 측정된 정치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재호와 조근호(2014)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기반 이론의 다섯 가지 기반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 정은경과 그의 동료들(2011)은 초점화된 집단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용산재개발사건을 둘러싼 개념들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스키마 차이를 분석했다. 진보적인 응답자의 개념 네트워크에는 손상 및 공평성과 관련된 개인성 기반 요소가, 보수적인 응답자의 개념 네트워크에는 권위와 관련된 결속 기반 요소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석승혜와 그의 동료들(2015)은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던 중도집단에 주목하여 온라인 설문을 분석했다. 이들이 개인성 기반 요소나 결속 기반 요소에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탈도덕적’ 성향이라고 지칭했다.

도덕성 기반 이론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도덕성 기반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가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념 성향 차이와 정당일체감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으나, 대개 과점 구조를 취하는 현실의 정당체제가 이념 스펙트럼을 모두 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체제로 대표되지 않는 도덕적·이념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는 강한 정당일체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이나 무당파에 소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이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에 비해 더욱 강한 가치관 편향을 보일 것이다.

III. 변수의 설정 및 기술통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정당일체감을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 한한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당입니까?”의 두 단계로 나누어 물었다. 송정민과 박원호(2012)에 의하면 이러한 설문 방식은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의 존재 여부를 먼저 묻는 형태의 설문에 비해 무당파층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후속 설문을 통해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부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두 단계의 설문 외에는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설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5점 척도로 정당일체감 변수를 설정한다. 즉 강한 새누리당 지지자(1)-약한 새누리당 지지자(2)-무당파(3)-약한 민주당 지지자(4)-강한 민주당 지지자(5)로 조작화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당일체감과 함께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종속변수로서 모델에 반영하며, 무당파(0)-약한 정당일체감 보유자(1)-강한 정당일체감 보유자(2)로 조작화한다. 응답자 전원 및 청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는 <표1>와 같다

한편 앞서 토론한 정당일체감 변수의 불연속성 내지 다차원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작화가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차

원을 갖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Weisberg 1980). 또한 앞서 언급한 설문문의 구조는 가장 선호하지는 않는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외의 정당들의 경우 지지자가 적어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의 범위에서는 유효한 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본 논문의 경우 18~40세의 청년 유권자들(이하 청년으로 약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을 강약만이 존재하는 서열 척도로 파악하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이념적·윤리적 지향과 각 정당일체감 집단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당일체감 분류가 일체감의 강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범주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당일체감의 형성 및 변화의 인과관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연령	정당일체감					계
	강새누리	약새누리	무당파	약민주	강민주	
18~40	154	30	111	58	170	523
41+	354	43	85	52	162	696
합계	508	73	196	110	332	1,219

연령	정당일체감 강도			계
	무당파	약한 일체감	강한 일체감	
18~40	111	88	324	523
41+	85	96	516	696
합계	196	183	840	1,219

<표1> 정당일체감 및 정당일체감 강도 분포

하이트와 조셉(Haidt and Joseph 2004)의 다섯 가지 가치관 기준 가운데 고귀함/추함 기준을 제외한 네 가지, 즉 공평성/부정, 배려/피해, 권위/전복, 충성심/배신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각 설문은 분류는 <표2>와 같다.⁴ 각 설문은 매우 동의(1)-다소 동의(2)-동의도 반대도 아님(3)-다소 반대(4)-매우 반대(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분류와 응답자 전체 및 청년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일체감 집단의 가치관 설문 응답의 평균은 <표3> 및 <표4>와 같다. 설문의 한계상 하이트의 연구와 같이 다각적인 상황을 상정한 여러 설문들을 통해 응답자가 가진 가치관을 정확하

⁴ 공평성/부정 기반과 충성심/배신 기반의 분류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공평성/부정 기반의 경우, 설문의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바라며 그러한 대가를 제한 없이 향수하기 바라는 경향이 공평성/부정 기반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간접적으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안정된 관계와 보상의 가능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데에서 충성심/배신 기반과 관련이 있다.

게 계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가치관과 정당일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시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보다 정치한 연구의 기반으로 삼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공평성/부정 설문과 권위/전복 설문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림1>과 <그림2>에서 보이듯 전체 응답자와 청년 응답자의 경우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개인 기반의 가치관 요소로써, 정당일체감 집단에 따라 응답의 편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배려/피해 설문들에서는 <그림3>과 <그림4>에서 나타나듯 약한 새누리당 정당정체성 집단이 일관되게 가장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가치관 기준	설문
공평성/부정	<p>돈을 버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하 공평 1)</p> <p>부를 일궈내는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하 공평 2)</p> <p>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걸러지기 마련이다. (이하 공평 3)</p>
권위/전복	<p>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옳고 그름이 더 분명하다. (이하 권위 1)</p> <p>요즈음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은 훈육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 권위 2)</p> <p>사람들은 권위에 너무 자주 도전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하 권위 3)</p>
충성심/배신	<p>심각한 계획을 하기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이하 충성 1)</p> <p>나는 인생이 로또(복권)와 같다고 느낀다. (이하 충성 2)</p> <p>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하 충성 3)</p>
배려/피해	<p>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하 배려 1)</p> <p>부가 국가들마다 더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세계는 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배려 2)</p> <p>이 나라에는 재화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이하 배려 3)</p>

<표2> 가치관 설문 분류

전체	강새누리 (N=508)	약새누리 (N=73)	무당파 (N=196)	약민주 (N=110)	강민주 (N=332)	계 (N=1,219)
공평 1	1.86	1.95	2.21	2.01	2.01	1.97
	0.92	0.85	1.06	0.87	1.00	0.96
공평 2	1.95	1.90	2.07	2.17	2.09	2.03
	0.97	0.79	0.97	0.94	0.93	0.95
공평 3	1.78	1.92	2.08	2.06	2.03	1.93
	0.87	0.80	1.00	0.93	0.97	0.93
권위 1	1.97	2.16	2.18	2.17	2.13	2.08
	0.87	0.88	0.87	0.79	0.86	0.87
권위 2	1.68	1.82	2.08	2.01	1.88	1.83
	0.93	0.92	1.01	0.93	0.92	0.95
권위 3	2.45	2.41	2.70	2.80	2.55	2.55
	0.96	0.97	0.90	0.99	0.92	0.95
충성 1	2.50	2.41	2.47	2.64	2.47	2.49
	1.06	1.03	1.00	1.00	1.04	1.04
충성 2	3.59	3.71	3.69	3.52	3.46	3.57
	1.15	1.03	1.13	1.02	1.18	1.14
충성 3	3.04	3.08	3.16	3.29	3.06	3.09
	1.29	1.21	1.19	1.14	1.21	1.24
배려 1	2.03	2.22	2.08	1.86	1.93	2.01
	1.06	1.04	0.99	0.78	0.95	1.00
배려 2	2.46	2.84	2.55	2.53	2.37	2.48
	1.21	1.15	1.19	1.04	1.03	1.14
배려 3	2.53	2.63	2.63	2.49	2.36	2.50
	1.14	1.03	1.13	1.05	0.9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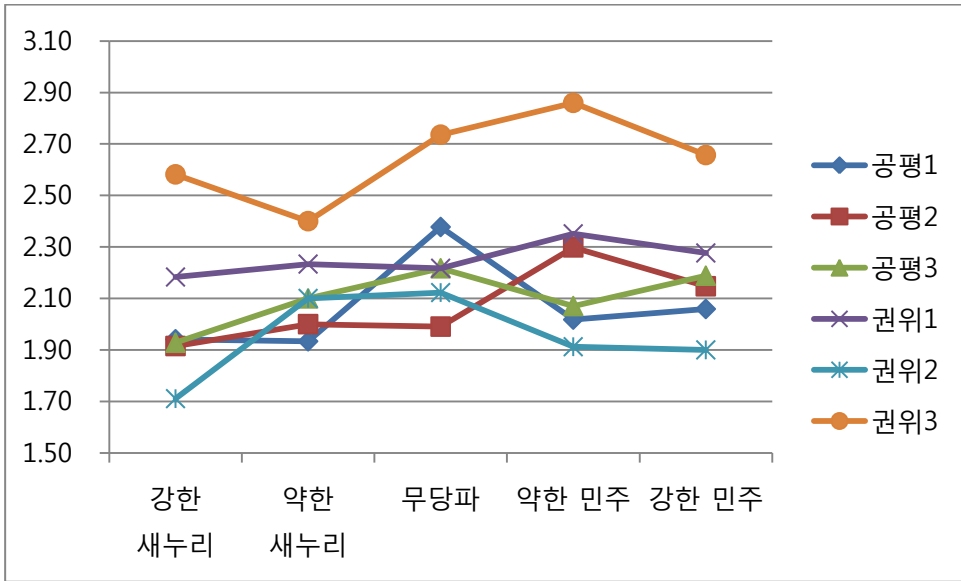
위의 숫자는 평균을, 아래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 3> 전 응답자 대상 가치관 설문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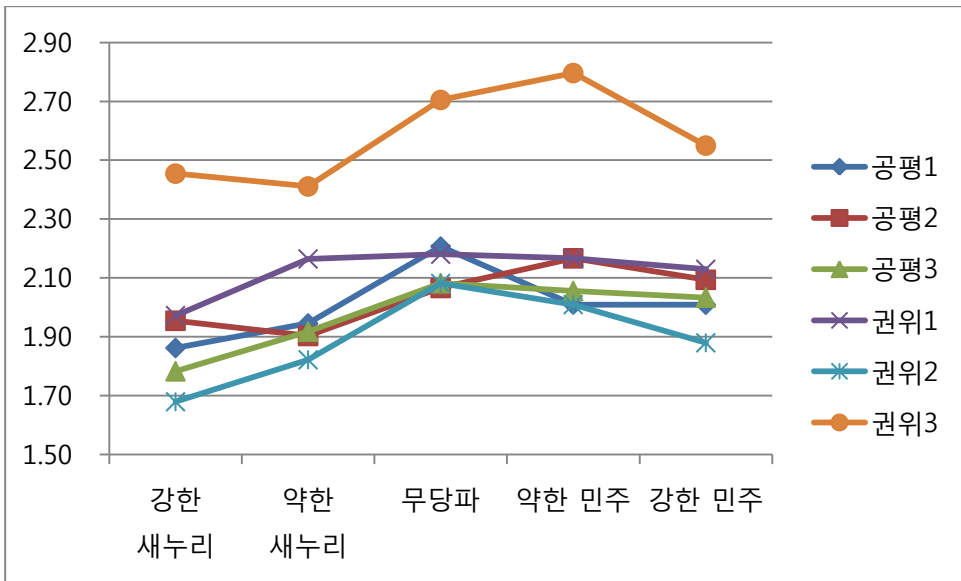
청년	강새누리 (N=154)	약새누리 (N=30)	무당파 (N=111)	약민주 (N=58)	강민주 (N=170)	계 (N=523)
공평 1	1.94	1.93	2.38	2.02	2.06	2.08
	0.90	0.64	1.06	0.90	1.00	0.96
공평 2	1.92	2.00	1.99	2.30	2.15	2.05
	0.85	0.69	0.81	0.98	0.91	0.88
공평 3	1.93	2.10	2.22	2.07	2.19	2.10
	0.93	0.80	1.02	0.98	1.02	0.98
권위 1	2.18	2.23	2.22	2.35	2.28	2.24
	0.88	0.94	0.78	0.81	0.82	0.84
권위 2	1.71	2.10	2.12	1.91	1.90	1.90
	0.93	1.12	0.99	0.93	0.90	0.95
권위 3	2.58	2.40	2.74	2.86	2.66	2.66
	0.96	0.93	0.87	0.95	0.89	0.92
충성 1	2.63	2.50	2.51	2.74	2.49	2.56
	1.04	1.04	1.01	1.03	1.01	1.02
충성 2	3.36	3.57	3.59	3.46	3.33	3.42
	1.17	0.97	1.14	0.96	1.20	1.14
충성 3	3.16	3.23	3.18	3.46	3.09	3.18
	1.21	1.04	1.17	1.02	1.17	1.16
배려 1	2.08	2.50	2.16	1.79	2.07	2.09
	0.99	1.04	0.98	0.65	0.98	0.96
배려 2	2.77	3.10	2.69	2.63	2.62	2.71
	1.23	0.99	1.18	0.99	1.05	1.13
배려 3	2.81	2.90	2.68	2.63	2.50	2.67
	1.16	0.80	1.08	0.98	0.98	1.06

위의 숫자는 평균을, 아래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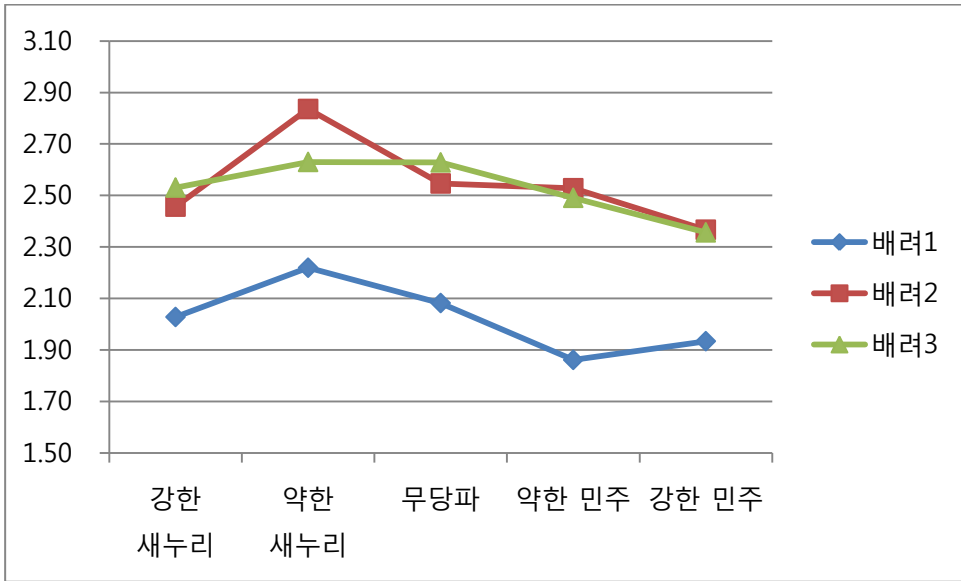
<표 4> 청년 응답자 대상 가치관 설문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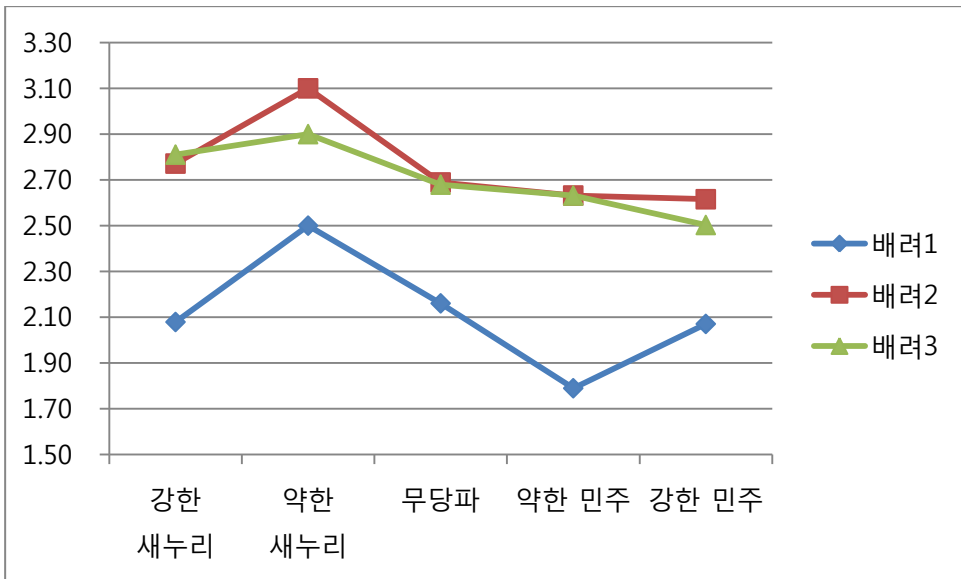
<그림1> 공평성/부정 및 권위/전복 설문에 대한 청년 응답자의 평균



<그림2> 공평성/부정 및 권위/전복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그림3> 배려/피해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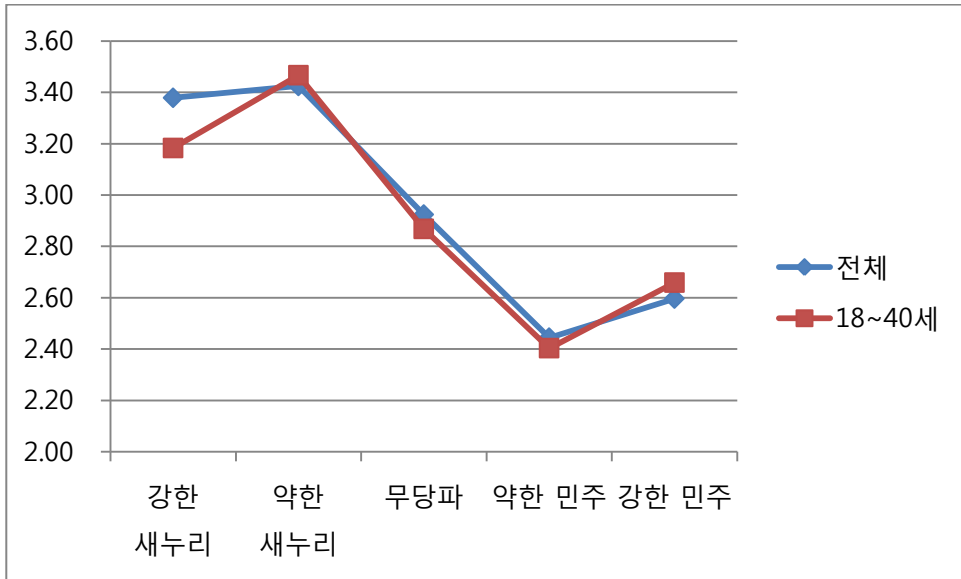


<그림4> 배려/피해 설문에 대한 청년 응답자의 평균

정치적 이념 변수는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진보적(1)-다소 진보적(2)-중도(3)-다소 보수적(4)-매우 보수적(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작화했다. <표5>와 <그림5>에서 드러나듯 배려/피해 설문에서 보여지는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의 이념적 극단화 현상은 정치적 이념 설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보다 중도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배려/피해 설문과 정치적 이념 설문의 기술적 통계 결과는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이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보다도 더욱 강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양변수 분석에 의한 것으로써 모델 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의 유의성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체			청년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강새누리	3.38	1.01	507	3.18	1.00	153
약새누리	3.42	0.80	73	3.47	0.73	30
무당파	2.92	0.88	184	2.87	0.84	106
약민주	2.44	0.77	108	2.40	0.80	57
강민주	2.60	0.88	332	2.66	0.83	170
계	3.01	1.00	1204	2.88	0.92	516

<표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이념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5> 이념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와 청년 응답자의 평균

통제변수로서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지역을 조작화하여 이용한다. 교육수준은 초졸(1)-중졸(2)-고졸(3)-전문대졸(4)-대졸(5)-석사(6)-박사(7)로 조작화한다. 주관적 계층의식(이하 계층의식)은 최하층(1)-최상층(10)까지의 10점 리커트 척도로, 연령은 18~30세(0)-31~40세(1)-41~50세(2)-51~60세(3)-61세 이상(4)의 5점 척도로 조작화한다. 거주지역은 광주·호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거주 여부를 판별하는 이항변수를 사용하여 모델에 반영한다. 정당일체감 집단에 따른 통제변수들의 분포는 <표6>, <표7>와 같다.

교육수준과 계층의식은 무당파의 정치적 정보 습득 능력과 동원할 수 있

는 정치적 자원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써 자주 원용되었다(Dalton et al. 2000). <그림6>을 통해 비교할 때 무당파는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당파에 대한 전통적 이해(Converse 1960)는 물론 달튼이 주창한 “인지적 무당파 (cognitive independent)” 개념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연령 변수는 청년 응답자 내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반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무당파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연령대가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새누리 (N=154)	약새누리 (N=30)	무당파 (N=111)	약민주 (N=58)	강민주 (N=170)	계 (N=523)
교육	4.41	4.57	4.57	4.44	4.39	4.45
	0.91	0.94	1.07	0.89	0.81	0.91
계층	5.14	5.33	4.70	4.58	4.96	4.94
	1.51	1.54	1.66	1.41	1.35	1.50
연령	0.48	0.57	0.49	0.47	0.37	0.45
	0.50	0.50	0.50	0.50	0.48	0.50
호남	0.02	0.00	0.21	0.12	0.21	0.13
	0.14	0.00	0.41	0.33	0.41	0.34
경남	0.10	0.03	0.09	0.09	0.10	0.09
	0.31	0.18	0.29	0.29	0.30	0.29
경북	0.25	0.33	0.13	0.07	0.07	0.15
	0.44	0.48	0.34	0.26	0.26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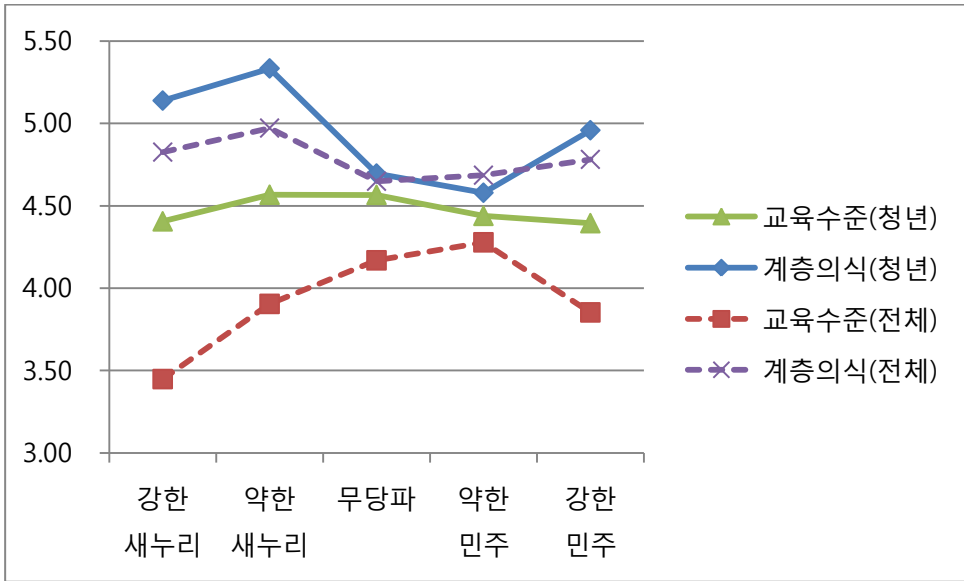
위의 숫자는 평균을, 아래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6> 청년층 응답자의 통제변수 분포

	강새누리 (N=508)	약새누리 (N=73)	무당파 (N=196)	약민주 (N=110)	강민주 (N=332)	계 (N=1219)
교육	3.45	3.90	4.17	4.28	3.85	3.77
	1.55	1.58	1.44	1.32	1.27	1.47
계층	4.83	4.97	4.65	4.69	4.78	4.78
	1.69	1.68	1.70	1.59	1.49	1.63
연령	2.32	2.05	1.47	1.37	1.50	1.86
	1.42	1.46	1.33	1.14	1.34	1.42
호남	0.03	0.03	0.18	0.15	0.27	0.13
	0.18	0.16	0.38	0.36	0.44	0.34
경남	0.13	0.10	0.08	0.08	0.09	0.11
	0.34	0.30	0.27	0.28	0.28	0.31
경북	0.18	0.19	0.14	0.06	0.06	0.13
	0.39	0.40	0.34	0.25	0.24	0.34

위의 숫자는 평균을, 아래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7> 전체 응답자의 통제변수 분포



<그림6> 교육수준과 계층의식 평균

IV. 분석

1. 정당일체감 강도 모델

본격적으로 다변량로지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예비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응답의 대략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다변량로지분석 결과와 비교할 비교군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당일체감 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청년 응답자들과 전체 응답자들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평1(“돈을 버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주된 이유이다.”) 설문과 권위2(“요즈음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은 훈육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설문은 청년 집단과 응답자 전체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과 정당일체감 강도 사이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당일체감이 유의미하게 강해진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생각할 때, 비교적 보수적·현실주의적·전통적 가치관을 보유한 저학력 계층일수록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단순회귀분석의 방법론적 한계상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정당일체감을 다룬 연구들 중 대다수(대표적으로 Converse 1964)에서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많은 유·무형의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 이해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자원과 정치이해도가 정당일체감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적·전통적·현실주의적 가치를 추종하며 학력이 비교적 낮은 유권자의 경우 기존의 이론에 따를 때 정당일체감이 비교적 낮아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편 중요한 정치적 자원 가운데 하나인 경제력을 대표하는 변수인 주관적 소득계층 변수는 전통적인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의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인지적 동원보다는 당파적 동원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관습적 당파(ritual partisans)’에 가까운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N=501)			전체(N=1175)		
	계수	p		계수	p	
공평 1	-0.13	0.004	**	-0.06	0.027	*
공평 2	0.09	0.042	*	0.02	0.484	
공평 3	-0.04	0.351		-0.01	0.588	
권위 1	0.02	0.65		-0.02	0.586	
권위 2	-0.11	0.009	**	-0.09	0.001	**
권위 3	0.00	0.968		-0.02	0.427	
충성 1	0.06	0.154		0.05	0.016	*
충성 2	-0.04	0.283		-0.03	0.079	
충성 3	-0.04	0.226		-0.02	0.279	
배려 1	-0.01	0.725		0.00	0.86	
배려 2	0.04	0.372		0.00	0.839	
배려 3	-0.01	0.82		-0.02	0.431	
교육수준	-0.08	0.048	*	-0.07	0.000	**
연령	-0.13	0.067	+	0.03	0.091	+
광주·호남	-0.13	0.253		-0.05	0.448	
부산·경남	0.12	0.345		0.10	0.134	
대구·경북	0.02	0.872		0.01	0.91	
이념	0.03	0.424		0.03	0.125	
소득계층	0.09	0.001	**	0.05	0.001	**
_cons	1.74	0	**	1.86	0	**
	R ² =0.0875 F=2.46			R ² =0.0749 F=5.24		

+:p<0.1 *:p<0.05 **:p<0.01

<표8>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회귀분석

청년(<표9>)과 전체 응답자(<표10>)를 대상으로 정당일체감 강도를 종속 변수로 한 다변량로지분석(기본값: 무당파)은 정당일체감 집단 간의 가치관·이념 성향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평1 설문에 동의할수록, 공평2 설문(“부를 일궈내는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을 부정할수록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과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에 속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공평1 설문의 경우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청년 대상의 분석과 같은 방향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동원이 좌우 모두에서 공평 가치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현실주의적 직업관뿐 아니라 평등주의 가치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당파성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당파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두 설문 모두에서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과 보다 크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은 청년 사이의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이 연령, 소득지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보다는 가치관 및 이념적 변수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은 이념적·인구통계적 변수와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는 강한 정

당일체감을 가진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귀속적 지위에 강한 영향을 받아 정당일체감을 형성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 지역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강한 정당일체감 간의 제한된 유의성을 가진 상관관계는 주관적 소득계층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추정을 한층 뒷받침한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지만, 청년 응답자 대상의 분석에서보다 강한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연령과 교육수준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보다 다양한 연령 집단이 분석 모델에 포함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분석대상 응답자의 교육수준 편차도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에서 나타나는 가치관 및 이념적 변수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는데, 이는 가치관 및 이념의 영향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유권자』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정당일체감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극화(極化)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써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지속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약한 정당일체감			강한 정당일체감		
	RRR	p		RRR	p	
공평 1	0.52	0.000	**	0.61	0.001	**
공평 2	1.82	0.002	**	1.48	0.013	*
공평 3	0.81	0.215		0.86	0.246	
권위 1	1.30	0.197		1.13	0.46	
권위 2	0.90	0.55		0.72	0.015	*
권위 3	0.91	0.612		0.99	0.921	
충성 1	1.32	0.103		1.26	0.089	+
충성 2	0.94	0.67		0.90	0.364	
충성 3	1.18	0.264		0.91	0.396	
배려 1	0.79	0.19		0.91	0.529	
배려 2	1.28	0.148		1.18	0.238	
배려 3	1.03	0.879		0.97	0.826	
교육수준	0.99	0.958		0.78	0.078	+
연령	1.04	0.895		0.66	0.1	+
광주·호남	0.31	0.018	*	0.58	0.095	+
부산·경남	0.63	0.445		1.26	0.589	
대구·경북	0.96	0.921		1.04	0.916	
이념	0.88	0.424		1.08	0.571	
소득계층	1.16	0.205		1.34	0.001	**
_cons	0.34	0.384		6.02	0.067	+

pseudo R²=0.0765 chi-square=66.05 N=503

+:p<0.1 *:p<0.05 **:p<0.01

<표9> 청년 대상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다변량로지분석

	약한 정당일체감		강한 정당일체감	
	RRR	p	RRR	p
공평 1	0.74	0.009 **	0.77	0.006 **
공평 2	1.09	0.492	1.09	0.405
공평 3	0.96	0.74	0.95	0.6
권위 1	1.07	0.597	0.97	0.797
권위 2	0.87	0.227	0.73	0.001 **
권위 3	0.96	0.719	0.93	0.451
충성 1	1.18	0.143	1.25	0.016 *
충성 2	0.92	0.413	0.88	0.13
충성 3	1.06	0.51	0.95	0.459
배려 1	0.90	0.354	0.98	0.824
배려 2	1.30	0.036 *	1.10	0.346
배려 3	0.82	0.112	0.89	0.242
교육수준	0.99	0.895	0.76	0.000 **
연령	1.10	0.291	1.15	0.062 +
광주·호남	0.51	0.042 *	0.74	0.206
부산·경남	1.14	0.755	1.53	0.19
대구·경북	0.75	0.391	0.95	0.841
이념	0.88	0.206	1.08	0.379
소득계층	1.11	0.157	1.21	0.001 **
_cons	1.54	0.607	15.22	0.000 **

pseudo R²=0.0586 chi-square=103.05 N=1175

+:p<0.1 *:p<0.05 **:p<0.01

<표10> 전 응답자 대상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다변량로지분석

2. 정당일체감 모델

정당일체감 및 이념의 방향을 고려한 정당일체감 모델에서는 방향과 강도 측면에서 구분되는 각 정당일체감 집단들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이 이념 및 이념과 관련된 가치관 변수들에 대해 가지는 상관관계의 크기와 유의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이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과 구분되는 특질을 가지는지 여부를 밝혀낸다.

청년 집단에 대한 분석(<표11>)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공평1 변수에 대한 동의와 모든 정당일체감 집단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새누리당과 민주 양 당파성 모두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 모델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된 무당파 집단의 경우 공평1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은 성취감, 보람, 재미 등 자신의 일에서 금전적 소득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우 어느 당파에도 일체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치 관심층과 정치 무관심층의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평2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낼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동원이 진보적인 당파성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권위2나 권위3(“사람들은 권위에 너무 자주 도전하는 문제

를 지닌다.”)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속 기반의 가치관에 대한 친화성이 보수적인 정당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의 당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몇몇 설문들 또한 정당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이념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이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과 대조되는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에서 정치적 이념은 매우 높은 계수와 유의도를 보이는 변수이나,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에서 정치적 이념의 영향력은 비교적 유의미해도 적거나 유의미하지 않기도 하다. 반면 지역, 교육수준,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약한 정당일체감 집단은 이념과,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깊은 상관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이 정당일체감 강도 분석에 이어 재삼 드러난 것이다.

약한 민주당 지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정당일체감 집단에서 높은 소득계층과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정당일체감의 방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자원의 존재가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정당일체감과 큰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표12>)의 경우, 표본 수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가치관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정치적 이념 변수의 영향력은 계수와 유의도 양 측면에서 더욱 강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

	강한 새누리			약한 새누리			약한 민주			강한 민주		
	RRR	p		RRR	p		RRR	p		RRR	p	
공평 1	0.59	0.002	**	0.44	0.000	**	0.55	0.004	**	0.62	0.002	**
공평 2	1.32	0.122		1.42	0.17		2.11	0.001	**	1.58	0.006	**
공평 3	0.77	0.116		1.03	0.911		0.75	0.165		0.94	0.663	
권위 1	1.02	0.909		1.21	0.544		1.38	0.148		1.16	0.4	
권위 2	0.65	0.01	**	1.09	0.72		0.82	0.32		0.81	0.16	
권위 3	0.98	0.905		0.49	0.023	*	1.14	0.497		1.00	0.997	
충성 1	1.39	0.044	*	1.08	0.73		1.50	0.041	*	1.17	0.289	
충성 2	0.87	0.291		1.12	0.58		0.82	0.244		0.91	0.492	
충성 3	0.89	0.378		0.95	0.807		1.39	0.081	+	0.92	0.517	
배려 1	0.88	0.475		1.32	0.266		0.57	0.004	**	0.94	0.721	
배려 2	1.13	0.466		1.67	0.055	+	1.12	0.542		1.19	0.251	
배려 3	1.18	0.34		0.80	0.361		1.08	0.702		0.82	0.21	
교육	0.83	0.281		1.37	0.321		0.97	0.889		0.74	0.048	*
연령	0.98	0.951		1.68	0.274		0.95	0.899		0.52	0.017	*
호남	0.11	0.001	**	0.00	0.000	**	0.46	0.149		1.05	0.882	
경남	1.18	0.716		0.30	0.309		0.78	0.692		1.28	0.603	
경북	1.63	0.2		2.17	0.135		0.41	0.161		0.49	0.109	
이념	1.47	0.017	*	2.24	0.002	**	0.57	0.003	**	0.83	0.202	
계층	1.38	0.002	**	1.53	0.012	*	1.02	0.871		1.30	0.009	**
_cons	0.96	0.976		0.00	0.000	**	0.98	0.986		8.10	0.061	+

pseudo R²=0.1580 chi-square=2204 N=503

+:p<0.1 *:p<0.05 **:p<0.01

<표11> 청년 대상 정당일체감에 대한 다변량로지분석

	강한 새누리			약한 새누리			약한 민주			강한 민주		
	RRR	p		RRR	p		RRR	p		RRR	p	
공평 1	0.69	0.001	**	0.74	0.055	+	0.75	0.027	*	0.83	0.078	+
공평 2	1.06	0.63		0.90	0.517		1.21	0.172		1.12	0.323	
공평 3	0.88	0.286		1.00	0.984		0.94	0.687		1.03	0.807	
권위 1	0.93	0.554		1.17	0.392		1.04	0.82		1.01	0.924	
권위 2	0.67	0.000	**	0.82	0.242		0.92	0.498		0.83	0.07	+
권위 3	0.96	0.682		0.75	0.128		1.09	0.5		0.91	0.394	
충성 1	1.32	0.006	**	1.08	0.63		1.27	0.06	+	1.16	0.155	
충성 2	0.87	0.132		1.02	0.886		0.84	0.136		0.89	0.208	
충성 3	0.94	0.42		0.94	0.637		1.16	0.186		0.96	0.649	
배려 1	0.99	0.96		1.06	0.682		0.79	0.065	+	0.98	0.837	
배려 2	1.17	0.201		1.52	0.014	*	1.19	0.219		1.08	0.496	
배려 3	0.95	0.695		0.80	0.183		0.83	0.182		0.78	0.028	*
교육	0.76	0.001	**	0.93	0.557		1.02	0.844		0.75	0.001	**
연령	1.44	0.000	**	1.35	0.019	*	0.95	0.607		0.87	0.109	
호남	0.14	0.000	**	0.14	0.013	*	0.73	0.384		1.59	0.058	
경남	1.69	0.124		1.25	0.671		1.03	0.948		1.37	0.41	
경북	1.39	0.237		1.30	0.519		0.44	0.078	+	0.48	0.032	
이념	1.59	0.000	**	1.65	0.001	**	0.60	0.000	**	0.70	0.000	**
계층	1.26	0.000	**	1.25	0.03	**	1.03	0.727		1.18	0.012	*
_cons	1.79	0.436		0.06	0.008	**	2.93	0.297		33.84	0.000	**

pseudo R²=0.1561 chi-square=402.08 N=1175

+:p<0.1 *:p<0.05 **:p<0.01

<표12 전원 대상 정당일체감에 대한 다변량로지분석

3. 소결

정당일체감의 강도와 정당일체감을 대상으로 한 두 단계의 분석을 통해 앞서 제기했던 일련의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념적 방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세속적·현실적 가치관과 정당일체감의 존재 사이에는 뚜렷하고 일관되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신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정당일체감 심화의 경로 가운데 하나라는 정당일체감 이론의 설명(Campbell et al. 1960)을 감안할 때 새롭지 않은 발견일 수 있으나, 예컨대 탈물질주의의 정치적 이슈화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한 태도가 대표되기 어려운 한국의 정당체제 상황을 보여주는 일례라고도 할 수 있다.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응답자 전체보다는 청년층에,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보다는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에서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치관 기반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에 의한 동원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고령화에 따른 당파성의 강화를 아직 겪지 않은 청년층에게서 가치관과 이념의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기성 정당들이 유권자의 이념적 편향을 신속하고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청년과 무당파의 정치참여 문제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토론

지금의 한국 유권자, 특히 청년에게 있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혹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정당을 ‘조금이라도’ 선호한다는 것은 약간 덜 지지하는 것일 뿐인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의문들은 이것들이었다. 결국 기표소 안의 인주 도장 한 방이 투표지의 어느 칸을 향할 것인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인,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유권자의 생각을 남김없이 그대로 대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론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여 이론적·경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선거라는 이름의 명목은 거창하지만 실은 싱겁기 짝이 없는 행위가 유권자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논문의 가장 큰 기여는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실제로는 감정이나 심리의 강약 이상의 함의를 품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주요 정당들이 대표할 수 있는 이념의 다양성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약한 정당일체감은 투표율의 저하, 정당 선호 이동의 가능성 증가, 정치에 대한 관심 감소 등으로 요약되었으나, 가치관과 이념 양면에서 강한 정당일체감 집단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분명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해줄 정당이 없는 가운데, 차선으로서 한 정당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지향과 차이를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었다.

정당일체감이 형성·강화 과정에 있는 청년이 장년에 비해 가치관과 이념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는 점 또한 언급될 수 있다. 수 세대에 걸쳐 정당일체감이 계승되며 풀뿌리 정당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일천한 민주주의 경험과 미약한 풀뿌리 정당조직은 미국과 같은 이론으로 한국의 정당일체감을 설명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청년 유권자들은 도덕적·이념적 판단기준과 주어진 정보와 이전 세대에 비해 향상된 인식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선호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본의 임의추출이 준수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써, 많지 않은 표본 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 유권자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한 점이다.

한편 원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에 비해 분석대상으로 한 설문이 매우 간략하고 내용이 상이하여 다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섯 가지 가치관 기반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가치관과 정당일체감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복수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은 한계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 길.
- 강원택 2009.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9-9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연숙. 2013. “한국 유권자의 상충적(Ambivalent) 태도와 투표선택경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장수. 200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 기제와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145-168.
- 박원호 2012. “세대균열의 진화: 386세대의 소멸과 30대 유권자의 부상.” 박찬욱 외 편. 『한국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박원호 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115-143.
- 박원호 2013. “무당파의 선택: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이내영 외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석승혜 장예빛 유승호. 2015. “한국의 중도집단은 탈도덕적인가? 이념성향에 따른 도덕성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9집 제5호. 113-149.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제81호. 61-88.
- 이영민. 2010. “20대의 정치의식 특성과 정치성향의 형성경로.” 『사회연구』. 통권19호. 9-43.
- 이재호 조공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1-26.
- 이정호. 2014. “무당파 층의 정당 인식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균열의 징후: 부산지역 유권자의 표적 집단 대담(FGI)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57-79.
- 이현출. 2000.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137-160.
- 전용주 김도경 서영조. 2008. “부산 ·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 연구: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89-314.
-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93-105.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

호.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1-21.

정한울. 2012.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의 정치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상충적 태도갈등 모델의 적용과 경험적 검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은호 진영재 2012. “소셜미디어와 정치적 집단행동 발생에 대한 소고: ‘나꼼수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157-188.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 65-93.

1. 영문 자료

Abramowitz, A and Saunders, K. L. 2006. “Exploring the Bases of Partisanship in the American Electorate: Social Identity vs. Ideolog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9. No. 2. 175-187.

Abramowitz, A. 2010. *The Disappearing Center: Engaged Citizens, Polarization, & America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lbright, J. J. 2009. “Does political knowledge erode party

attachments?: A review of the cognitive mobilization thesis.”

Electoral Studies. Vol. 28. 248-260.

Bartels, B. L., Box-Steffensmeier, J. M., Smidt, C. D., and Smith, R. M.

2011. “The dynamic properties of individual-level party

iden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Electoral Studies*. Vol. 30.

210-222.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and Stokes, D. E. 1960.

The American Voter. Wiley, New York.

Converse, 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s*. New York: Free

Press.

Dalton, R. J.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6. No. 1. 264-284.

Dalton, R. J. 2002.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3rd ed. New York: Seven

Bridge Press.

Dalton, R. J. 2012. “Apartisans and the changing Germ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Vol. 31. 35-45.

Downs, A. 1958.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gerton, M. 2002. "Political Partisanship, Voting Abstention and Higher Education: Changing Preferences in a British Youth Cohort in the 1990s." *Higher Education Quarterly*. Vol. 56. No. 2. 156-177.
- Fisher, D. R. 2012.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Bridging Activism and Electoral Politics."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8. 119-137.
- Fiorina, M.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 Graham, J., Haidt, J., and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6 Issue 5.
- Green, D., Palmquist, B. and Schickler, E. 2002. *Partisan Hearts & M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onathan Haidt.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Vintage.
- Haidt, J. and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20. Issue 1.
- Lewis-Beck, M. Jacoby, W. Norporth, H. and Weisberg, H.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sborne, D., Sears, D. O. and Valentino, N. A. 2011. "The End of the Solidly Democratic South: The Impressionable-Years Hypothesis." *Political Psychology*. Vol. 32. No. 1. 81-107.

van Leewen, F. and Park, J. 2009. "Perceptions of Social Dangers,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7. Issue 3.

Wolak, J. 2009. "Explaining change in party identification in adolescence." *Electoral Studies*. Vol. 28. 573-583.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Diminishing Partisanship among Korean Young Voters: Values and Ideology

Kim, Kabcheol
Political Science Maj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young voters are traditionally regarded as strong supporters of Democrat. However their partisanship has been diminishing recently.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 among voters' partisanship, their values, and political ideology to discover how they understand political information and decide whom to support. Independents had good ability to recognize political information, but considered themselves as the poorest among partisanship groups. In the case of weak partisanship group, they had stronger relationship with values and ideology than strong partisanship group, and young voters depended on their values and ideology more than older people di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 was that young voters, independents, and weak partisanship group were not represented properly, rather than lost will to engage. Values and Ideology had great influence upon the development of young voters' partisanship.

Keywords: party identification, young voters, independents, values,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indifference, cognitive mobilization

Student Number: 2013-20175